

(주소) 1565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전화) 032-890-4813 (팩스) 032-890-4819

배 포 일	2025.07.11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즉시				
경기창작캠퍼스 아티스트 레지던시 위한 '창작기회공간' 새 단장 돌입		3쪽	4장	gcc.ggcf.kr	부 서 : 지역문화본부 창작지원팀 사업담당 : 황선규 전 화 : 032-890-4813

## 경기창작캠퍼스 아티스트 레지던시 위한 '창작기회공간' 새 단장 돌입

- ▶ 경기창작캠퍼스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위한 '창작기회공간' 리모델링 실시설계 완료
- ▶ 예술가 총 26명 입주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공공 아티스트 레지던시 공간으로 탈바꿈
- ▶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93. 경기도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사업
- ▶ 오는 9월 착공 예정, 2026년 하반기 완공 목표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정주)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전문 예술가의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레지던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창작기회공간' 조성 사업의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조감도를 공개했다.

'창작기회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은 총 3,240백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올가을 공사에 착수한다. 경기창작캠퍼스 내 창작스튜디오 1동, 2동 두 개 건물의 전체면적 총 1,316.67m<sup>2</sup>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은 물론, 새로운 시대의 변화하는 예술 창작의 현장을 폭넓게 담아내기 위한 레지던시 사업 전반의 재편을 새롭게 기획하고 이를 공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경기창작캠퍼스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2.0' 시대를 열어갈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공간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업 공간 외에도 쾌적한 거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창작캠퍼스의 입지 여건상, 거주형으로 운영하는 레지던시인 만큼, 작업 공간은 물론 생활 공간의 편의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각 거주 공간에는 세탁기, 침대, 냉장고, 인덕션, 냉난방기 등이 기본 제공되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최대 26명의 작가가 안정적인 생활공간과 창작공간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예술가들의 교류와 휴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확충된다. 창작스튜디오

오 1동 1층에는 입주 예술가 간의 상시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공유 주방, 휴게실, 피트니스룸이 마련되며, 창작스튜디오 2동 3층에는 공유 사무공간이 개설되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작업실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다. 첫 번째 변화는 ▶**그룹 창작실 조성**이다. 최근 예술가들이 개별적인 작업은 물론 프로젝트 그룹, 콜렉티브 형태의 협업을 이루어 작품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이들을 위한 그룹 창작실을 조성한다. 또한 ▶**입주 작가들의 상시적인 작품 발표 공간 조성**을 통해 입주 기간 중 언제든지 전시나 발표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완성된 작품의 촬영을 위한 공동 작품 촬영실도 마련**되며, 목공실을 이용하는 작가들을 위한 장비들도 새롭게 갖추어 차별화된 창작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창작캠퍼스는 이번 '창작기회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 새롭게 선보이게 될 '아티스트 레지던시 2.0'의 다양한 변화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입주 작가 장르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 작가들을 위한 전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창작 아카데미'의 활성화는 물론, 상시적 작품 발표 기회 제공 및 해외 레지던시 교류 작가 선정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중이다. 예술계와 지역의 이슈를 공동으로 탐색하는 프로젝트 레지던시 사업과 작가들의 예술 생태계 진입을 돕는 예술 시장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창작캠퍼스는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있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09년 10월, 전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전문 기관인 '경기창작센터'로 문을 열었다. 개관 이후 5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예술가들의 입주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국내 대표 공공 레지던시 기관으로 자리 잡은 경기창작센터는 그간 노후화된 시설 개선, 창작 지원 대상 분야 확대, 대민 문화예술 서비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 가을, 예술 창작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복합문화공간 '경기창작캠퍼스'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추진중이다.

경기창작캠퍼스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문화본부 창작지원팀 황록주 팀장은 "이번 '창작기회공간' 조성 사업은 멈춰 있던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경기창작캠퍼스는 예술가들을 위해 창작 활동에 더욱 최적화된 공간은 물론, 기존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레지던시 연계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자료



창작스튜디오 1동 조감도



창작스튜디오 1동 내부 조감도



창작스튜디오 2동 조감도



창작스튜디오 2동 내부 조감도